



‘파친코’ 최고의 앙상블 캐스트 수상

미국 ‘스피릿 어워즈’서 최고 조화로운 출연진 선정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 (Pachinko) 팀이 미국의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최고의 조화를 이룬 출연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앙상블 캐스트’ 상을 받았다.

출연 배우 이민호는 지난 4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서 열린 제38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최고의 앙상블 캐스트’ 상을 받은 수상소

감을 영상으로 전했다고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가 6일 전했다.

이민호는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준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저희는 캐나다에서 시즌 2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친코’는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다. 이민호를 비롯해 윤여정, 김민하, 진하 등의 한국 배우들이 출연했다.

이민호는 극 중 젊은 시절 선자

(김민하 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드는 매력적인 인물 한수를 연기했다.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는 비영리단체 ‘필름 인디펜던트’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원래는 미국 독립영화를 후보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지난 2020년에 시상 영역을 TV 시리즈까지 확대했다.

앞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이정재가 이 시상식에서 남우 주연상을, 영화 ‘미나리’ 윤여정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영화 ‘기생충’은 국제 장편 영화상을 받은 바 있다.

영화 ‘대외비’ 개봉 첫 주말 정상

‘귀멸의 칼날’과 각축전 끝에 주말 동안 관객 25만명 동원

조진웅·이성민·김무열 주연 영화 ‘대외비’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상현집결, 그리고 도공 마을로’와 각축전을 벌인 끝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대외비’는 주말 사흘(3~5일)간 관객 25만 7000여 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49만6000여 명이다.

CGV에서 단독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은 23만 4000여 명을 동원해 뒤를 이었다.

다만 매출액에서는 ‘귀멸의 칼날’이 주말 동안 29억9000여 만원(매출액 점유율 24.6%)을 벌여 이어 ‘대외비’ (25억9000여 만원·21.3



영화 ‘대외비’.

연합뉴스

%를 앞섰다. 전날 국내 개봉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1위에 오른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관객 11만4000여 명으로 전주보다 한 단계 하락한 3위를 기록했다.

‘대외비’, ‘귀멸의 칼날’과 함께 개봉 첫 주말을 맞은 임영웅 콘서트 실황 영화 ‘아이 히어로 더 파이널’과 유연석·차태현 주연 영화 ‘멍멍이’는 각각 4위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인기 로맨스 웹소설 드라마로 재탄생

소설 ‘티파니에서 모닝 키스를’ 영상화 계약 체결

시트콤 ‘논스톱’의 정수현 작가가 쓴 웹소설 ‘티파니에서 모닝 키스를’이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리디는 최근 드라마 제작사 더그레이트쇼와 ‘티파니에서 모닝 키스를’ 영상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티파니에서 모닝 키스를’은 첫 사랑에게 청담동 건물을 빼앗긴 주인공 유하리가 자신의 건물을 차지한 차은희의 입주 도우미로 들어가

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코미디다.

정 작가는 MBC 인기 시트콤 ‘논스톱’ 방송 작가로 데뷔한 뒤 10년 넘게 ‘한양 다이어리’ 등 인기 웹소설을 써왔다.

리디 관계자는 “발랄한 스토리와 섬세한 감성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많은 팬이 영상화를 고대해 왔다”며 “웹메이드 드라마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라미란, 이도현.



연합뉴스

악착같이 살아온 나쁜 엄마 진영순 역을 맡았다.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홀로 아들을 키운 진영순은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나쁜 엄마가 되기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이도현은 뜻밖의 사고로 아이가 되어버린 검사 아들 최강호로 변신한다. 엄마까지 외면하며 철저히 성공을 위해 달린 그는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돼 엄마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드라마에는 안은진, 유인수, 정웅인, 최무성 등도 출연한다.

안은진은 최강호의 오랜 친구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당찬 성격의 이미지로, 유인수는 마을의 사고뭉치자 순정 마초 방삼식을 맡았다. 정웅인은 차기 대권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 오태수를, 최무성은 우백그룹 회장 송우백을 연기한다.

연출은 백상예술대상 수상작인 드라마 ‘괴물’을 연출한 심나연 PD가, 극본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극한직업’ ‘완벽한 타인’ 등을 쓴 배세영 작가가 맡았다.

연합뉴스

배우 라미란과 이도현이 만났다

JTBC 드라마 ‘나쁜엄마’서 엄마와 아들 연기

배우 라미란과 이도현이 JTBC 새 수목드라마 ‘나쁜엄마’에서 엄마와 아들로 호흡을 맞춘다.

JTBC는 힐링 코미디 ‘나쁜엄마’를 다음 달 26일 오후 10시30분에 처음 방송한다고 6일 밝혔다.

‘나쁜엄마’는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엄마와 뜻밖의 사고로 아이가 되어버린 아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라미란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JIBS/SBS, EBS1. It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오늘의 운세 7월. A horoscope section featuring a small portrait of Kim Hong-sang and a list of daily fortune predictions for the month of July, numbered 36 to 47.